이제는 전쟁이다!

(엡6:10~13)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전쟁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제는 전쟁이다'라는 뜻은,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멈추지 않고 이 세상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줄곧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전쟁이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형들이 먹을 음식을 들고 전쟁터를 찾아 갔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이 전쟁터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다윗의 생애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의 눈에 띠지 않던 일개 목동이 전 국민의 시선을 받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적인 의의보다는, 이 골리앗과의 대치 순간이 갖는 정말 중요한 의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로서의 중요한 의의가 무엇이냐 하면,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목동으로 혼자 지낼 때 갖고 있었던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동으로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 여호와하나님이 만군의 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양을 지켰습니다.
혼자만의 믿음이었는데, 전쟁터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보는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윗이 혼자 목동으로 있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정말 은밀한 믿음이 드러나고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왕으로부터 졸병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외쳤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 '만군의 주 여호와' 여호와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사울 왕으로부터 졸병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는 걸 알고 있었을 뿐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믿지 않은 것들이 다윗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본인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적의 적군과 맞서서 싸우게 되면서 이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도 믿음을 볼 기회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특징지으셨나 하면, 우리 인생의 캐릭터가 뭐냐 하면 전쟁입니다.
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이 인생살이에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의의는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사울 왕서부터 졸병까지 다 그래요, 다윗의 형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안 믿고 있었는데, 전쟁터에서라야

그 안 믿고 있는 상태가 드러나고, 전쟁터에서라야 목동으로 혼자 믿고 있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제2, 제3의 다윗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전쟁을 한다는 의식이 없이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 없이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나는 지금 전쟁터 속에 있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쟁터로 성격지어 졌는데, 전쟁을 한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고, 없다는 얘기에요.
드러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라는 의식이 있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의미이니까.
믿음을 드러내려면 전쟁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터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통치권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귀들은 계속 살아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씨름은 싸움이라는 얘기이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싸움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악의 영들이에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들이 통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머물고 있는 주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하늘,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의 그 공중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성격과, 도대체 그 싸움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임하게 될 전쟁터가 어떤 형상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골리앗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마귀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마귀들이, 공중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
혈과 육,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 삼층의 구조 속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우리 마음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빛의 세계인 하늘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해 버린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을 마귀들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봉쇄되었다고 하는 현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내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하늘의 빛이 차단되어서 완전히 이 세계 안에 갇혀서, 마귀의 간계에 묶여서 이 세상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 마음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비어 있어서 빈곳을 채워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다 이 세상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고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지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 겁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걸 마귀의 확대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커 보이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확대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있다고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

마귀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묶여있는 거예요,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 열려 있고 하늘을 향해 있으면서, 하늘에서 마음의 빈곳을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마음의 입구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세상으로부터 빨아들여서 만족하도록 속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다 있다, 네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다 있다.'
이러한 간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최근에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이러한 전투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말씀 속에서는 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의식의 반영이 뚜렷합니다.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예를 들면, 보세요.
육체를 따라 상전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상의 신분으로서 상전인 것과 육체상의 신분으로서 노예인 것은,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 영원한 영생의 차원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예로서의 신분을 굳혀버린 겁니다, '그대로 있어라!'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평생을 살다 죽어도 아~무런 손해 볼 게 없다, 오히려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될 경우에, 임금이 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하는 자가 일등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미, 마음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왕의 위치에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바울은 노예로 있어도 상관없고, 왕이 되어도 아~무런 장점이 더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간계를 부리기를 '네가 육체적인 상태에서 육체적인 신분이 노예상태로 있는 한 행복할 수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적어도 왕이 되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다고 자존심도 챙길 수가 있고,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고, 그게 사람다운 거 아니냐? 이게 좋은 거다'라고 선악을 판단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간계라는 거예요.
아무상관 없거든요.
대통령이 되어야 훌륭한 게 아닙니다, 동회 서기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을,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을 하늘과 땅 차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쪽에서 빠져나와버렸습니다.
혈육의 전쟁터에서 빠져 나올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인 것이에요.
성공한다, 출세한다, 이 세상에서 승진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모~든 전제들이 다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싸움, 국회에서의 설전 다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놓고 벌이는 한중일 삼각관의 영토 설전 역시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링컨이라든지 간디라든지 그리고 또 만델라 이런 사람들의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 정말 위대한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흉내도 못 낼 숭고한 결단이 전제되어 있고, 그 결단을 실행함에 있어서 말도 못할 대가를 고난으로 치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흉내도 못내요.
그런데 역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의 제도의 개선, 사회구조의 개혁 그리고 이념적인 싸움, 모두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과 가룟 유다, 민족의 독립, 나라의 독립이 최우선의 과제였습니다.
우리 일제하에서의 김구 선생님의 의식과 똑같습니다.
또 2차 대전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레지스탕스 운동, 다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이 순신장군의 나라를 구하신 싸움,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피아들의 마약전쟁, 형사들과 범죄자들의 쫓고 쫓기는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혈과 육이 아닌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걸 알려면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싸워야 될 전쟁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마귀와 싸우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느 편일까요?
독도가 일본으로 가는 걸 좋아할까요?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땅으로 지켜지는 걸 좋아갈까요.
마귀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삼성과 애플이 특허전쟁을 치렀습니다.
마귀는 어느 편일까요? 상관없어요.
단지, 마귀가 여기서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독도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마음을 독도에 빼기는 겁니다. 일본을 미워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철야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 관련된 일에 마음을 빼기는 것, 이것을 마귀는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난하게 되는 것,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 승진 못하는 것, 불행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돈 버는 거 방해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대통령 되는 거 방해하지 않아요.
내가 재벌 되는 거 마귀가 막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재벌이 돼도 좋고 대통령이 돼도 좋고 원한다면 그렇게 시켜줄 수도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원하는 거는, 어쨌든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 그거 하나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쨌든지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늘을 향해 하나님만을 갖기 위하여 마음자세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 싸움의 분명한 목적은 이거에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세상에서 좋을 것이라 여겨지는 그것들을 얻으려고 살던 사람들을, 다 십자가 앞에 세움으로써 세상에 대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마음의 배를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주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강하여지며'라고 말합니다.
그 주 안에서가 어디 안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의 보좌로 이어지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리로 모으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십자가 너머로 모으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작아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미 공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의 마음이 모여야 될 공간은 십자가 너머에 만들어져 있어요.
부활과 승천까지를 통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돌리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서 죽은 물고기가 배를 하얗게 드러내고 배를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배가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을 대할 때도 전쟁터입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잘 기르는 게 과제가 아니라, 자식을 대하고 있는 동안에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에요.
좋은 남편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아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내를 대하고 있는 동안에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아내에 대해서 행동할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마귀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요즘' '내가 지금 누구하고 사는지 몰라, 당신 여기가 하숙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자기한테 마음을 쓰게끔 만들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간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전쟁을 치르는 아내는, 나한테 남편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편의 마음이, 사업, 친구들, 이 세상의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십자가 너머에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공간 안으로 모으는 것, 이게 바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드러내야 믿음입니다.
드러내지 않은 채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사울 왕과 그 이하 졸병들에서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내려면 전쟁터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전쟁터입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신경 쓸 만한 일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내 앞에 제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간계를 부립니다,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마귀가 세상에서 내 마음에 좋다고 여기게끔 보이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가 머무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십자가 너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싸움이 끝까지 전쟁으로서 치러져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고 있다는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부터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전쟁으로서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